



보도	2026.3.24.(화) 조간	배포	2026.3.23.(월)	
담당부서	자본시장감독국 금융투자분쟁조정팀	책임자	팀장	김경수 (02-3145-7595)
		담당자	선임	권순훈 (02-3145-7592)

## 신용융자 반대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

### 주요 내용

- 최근 국내 증시 급등락으로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반대매매 위험이 증가하였으며, 관련 분쟁민원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.
  - 이에, 증권사 신용융자 반대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토대로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가 유의할 8가지 사항들을 안내드립니다.

**1 반대매매는 고객이 지정한 방법으로 사전 안내됩니다.**  
 **(분쟁사례)** 사전 안내를 받지 못했는데 반대매매가 되었어요.  
 ➔ **(Tip)** 내가 무심코 차단한 번호가 증권사 고객센터 번호는 아닐까요?

**2 반대매매 시 예상보다 많은 수량이 매도될 수 있습니다.**  
 **(분쟁사례)** 너무 많은 주식(담보부족금액 대비 약 15배)이 매도되었어요.  
 ➔ **(Tip)** 증권사 신용거래약관에 기재된 할인율을 확인하세요.

**3 담보비율 충족 여부는 장 마감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**  
 **(분쟁사례)** 담보비율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했는데 반대매매가 되었어요.  
 ➔ **(Tip)** 담보비율이 충족되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. 아직 장중 아닌가요?

**4 반대매매는 이미 발생한 손실을 확정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.**  
 **(분쟁사례)** 반대매매가 아니었으면 이익이 될 수 있었어요.  
 ➔ **(Tip)** 반대매매 자체가 손실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.

**5 반대매매 실행 전 종목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**  
 **(분쟁사례)** 반대매매 종목변경 요청을 했는데 그대로 반대매매되었어요.  
 ➔ **(Tip)** 장기 보유를 희망하는 종목이 있다면 증권사에 미리 변경 요청하세요.

**6 해외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담보비율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**  
 **(분쟁사례)** 국내주식 매도 후 해외주식(같은 금액)을 매수했는데 반대매매 되었어요.  
 ➔ **(Tip)** 해외주식은 국내주식보다 담보인정비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.

**7 미수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 신용거래에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.**  
 **(분쟁사례)** 주가가 떨어져 반대매매된 것 뿐인데 연체정보가 등록되었어요.  
 ➔ **(Tip)** 미수금, “나중에 갚지 뭐” 하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.

**8 증권사별 신용융자 이자율 부과 방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**  
 ➔ **(Tip)**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에서 증권사별 이자율을 비교해보세요.

## 1 반대매매는 고객이 지정한 방법으로 사전 안내됩니다.

-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실행하기에 앞서 신용거래 약정 체결 시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방법\*으로 담보부족금액 추가 납입을 요청합니다.

\* 유선, SMS, 알림톡, 이메일 등

- 안내된 통지를 누락하는 경우 추가납입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여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.

### 사례1 증권사 안내 번호를 차단하여 반대매매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한 사례

- **(신청 내용)** A증권사는 반대매매 전 고객 사전 안내 절차를 미준수 하였음
- **(회신 내용)** A증권사는 신용거래 약정 체결 시 신청인이 지정한 방법(SMS)으로 반대매매 사전 안내를 하였으나, 신청인이 안내 번호를 차단하여 이를 수신하지 못하였음

## 2 반대매매 시 예상보다 많은 수량이 매도될 수 있습니다.

- 증권사는 신용거래약관에 따라 전일 종가 등 기준가격에서 일정 비율(15~30%)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합니다.

- 특히, 증권사별 할인 비율에 따라 담보부족금액과 관계없이 반대매매 대상 종목의 모든 수량이 매도될 수 있습니다.

### 사례2 담보부족금액 대비 약 15배 많은 금액이 반대매매된 사례

- **(신청 내용)** B증권사의 신용융자 반대매매 시 담보부족금액(2,012,243원) 대비 반대매매 금액(30,901,500원)이 과도하게 산정된 것이 부당함
- **(회신 내용)** B증권사는 신용거래약관을 통해 기준가격(전일 종가) 대비 30% 할인된 가격으로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- 이 경우 관련 산식\*에 따라 반대매매 대상 종목의 모든 수량이 매도됨

※ B사의 반대매매 수량 산식 =  $\text{담보부족금액} / (\text{할인 가격} * \text{담보유지비율} - \text{전일 종가})$

□ (신청인 사례)  $2,012,243\text{원} / (53,830\text{원} * 140\% - 76,900\text{원}) = -1,308\text{주} (<0)$

- 반대매매 당일 시초가 76,300원으로 보유 중인 x종목 405주 전량 매도

☞ 담보부족금액과 무관하게 전량 매도(할인 비율: 30%, 담보유지비율: 140% 기준)

### 3 담보비율 충족여부는 장 마감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- 장중에는 주가가 계속 오르내리며 담보비율이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, 장중 확인한 담보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담보비율 충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장 마감 후 확정된 담보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#### 사례3 장중 담보비율이 하락하여 반대매매가 실행된 사례

- **(신청 내용)** 장중 신용용자를 이용해 매수한 주식을 매도(매도상환)하여 유지 담보비율(140%)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매매가 실행되었음
- **(회신 내용)** 매도상환 직후 담보비율이 일시적으로 140%를 상회하였으나, 이후 주가 하락에 따라 최종 담보비율은 140%를 하회하여 반대매매가 실행되었음

### 4 반대매매는 이미 발생한 손실을 확정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.

-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은 해당 종목의 투자 시점부터 반대매매 직전까지 주가 변동에 따른 기존 손실의 현실화 결과이며,
- 반대매매 직후 주가 상승은 사후적으로 나타난 결과일 뿐이므로, 반대매매 자체를 손실 발생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.

#### 사례4 장기 보유를 희망하던 종목이 반대매매된 사례

- **(신청 내용)** C증권사 통해 신용용자 거래를 이용하던 중 C증권사의 반대매매로 인해 장기 보유를 희망하던 y종목이 반대매매 처리되었음
  - y종목 주가는 반대매매 직후 계속 상승하였던 바, C증권사의 반대매매로 인해 손실이 가중되었음
- **(회신 내용)** C증권사는 장 개시 동시호가 때 시장가로 반대매매 주문을 접수하므로, 반대매매는 이미 발생한 평가손실을 확정하는 절차에 가까움
  - 반대매매 후 y종목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 역시 사후 결과일 뿐, 반대매매 자체가 손실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

## 5 반대매매 실행 전 종목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- 복수의 신용융자 종목 중에서 반대매매 대상 종목을 선정하는 순서는 증권사 신용거래약관에 따라 사전 지정되어 있으나,
  - 약관에 정해진 시간까지 대상 종목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담보 부족금액 수준에 따라 특정 종목의 반대매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

### 사례5 반대매매 종목 변경이 가능했음에도, 반영되지 않은 사례

- **(신청 내용)** 신청인은 D증권사 신용융자를 이용해 a,b,c,d 종목을 매수하였으며, 담보 미납으로 인해 a→b→c 종목 순서로 반대매매 처리 예정임을 통지 받았음
  - 신청인은 반대매매 당일 08:20경 장기보유를 희망하던 a종목 대신 **d종목**을 처분해달라고 D증권사에 **요구했으나, 실제 반대매매 시 a종목이 처분되었음**
- **(회신 내용)** 신청인이 D증권사 약관에 따라 종목 변경을 요청하였고, d→b→c 종목 순서로 처분하였더라면 **a종목 처분 없이 담보비율이 충족되었을** 상황인 바,
  - D증권사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

## 6 해외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담보비율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
- 신용융자 계좌 내 보유 현금으로 해외주식\* 등 담보가치가 낮은 상품을 매수하는 경우 담보비율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으며,
  - \* 일부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가격제한폭이 없어 통상 보수적으로 담보 책정
- 이 경우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 사례6 증권사 오안내로 인해 담보비율이 하락한 사례

- **(신청 내용)** E증권사 상담직원의 안내에 따라 국내주식을 매도하고 같은 금액만큼 해외주식을 매수하였으나, 기존 안내와 달리 **담보비율이 하락하였음**
- **(회신 내용)** E증권사는 **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담보인정비율이 상이함**
  - 담보인정비율이 높은 국내주식을 매도하고 낮은 해외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**담보비율이 하락하므로, E증권사의 안내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**

## 7 미수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 신용거래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.

- 반대매매 금액이 담보부족금액을 하회하는 경우 미수금이 발생하며, 증권사는 추가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합니다.
- 미수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되며, 이 경우 신용거래에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.

### 사례7 미수금이 변제되지 않아 연체정보가 등록된 사례

- **(신청 내용)** F증권사가 연체정보를 등록하여 신용거래에 불리함이 발생하였음
- **(회신 내용)** F증권사는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청인의 연체정보를 등록하였고, 미수 변제 후 신청인의 연체정보를 해제하였음

## 8 증권사별 신용융자 이자율 부과 방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- 신용융자 이자를 전체 기간에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 기간별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경우보다 이자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또한, 특정 증권사는 신용거래 약관에 따라 비대면 개설 계좌에 대해 지점 개설 계좌보다 높은 신용융자 이자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.

### 예시 신용융자 이자율 부과 방식별 이자비용 차이

- **(소급법)** 신용거래 종료 시점의 금리를 전체의 신용융자 이용기간에 소급
- **(체차법)** 신용매수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기간을 세분화하고, 각 기간별 금리 적용

※ 신용융자 이자율 부과 방식별 이자비용 차이 (100만원, 30일 사용 가정)

구분	1~7일	8~15일	16~30일	총 이자
체차법	연 4%	연 6%	연 8%	5,370원
소급법	연 8%			6,575원

☞ 소급법 이자비용 > 체차법 이자비용 (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증가하는 경우 체차법이 유리)

- ◆ **(향후 계획)**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적시에 안내할 계획이며,
  - 필요시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